

하나님의 절기에 집중하라

작성일 :2011년 1월 4일 오후 12:36

작성자 : 김혜영 (미국 샌프란시스코 반석교회 가정국)

[하나님의 절기를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며 기도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더 높이 올라가라 하시며 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닿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절기’ 동안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코치해 주셨고 그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경배드릴 때 주신 말씀입니다.]

* 하나님 말씀 *

내 사랑하는 자여, 내 말을 받아라.
지금은 1년 중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스러운 나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니라.
내가 너희 섭리인들에게 특별히 허락해준 이 시대 특권이요 혜택이니라.
유대인에게는 유월절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부활절이 있듯이
너희 섭리인들에게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절기’를 주었노라.
이 절기는 내 6000년 역사의 목적 중 하나이다.
땅에서 태어난 인간이 나 여호와를 진정 깨닫고
내 아들 예수를 통한 사랑으로
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됨을 인정하고
허락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기’이니라.

‘하나님의 절기’는 1년의 시작으로
한 해 동안 사탄들의 공격을 미리 막는 것은 물론
이요
모든 축복의 조건을 쌓는 거룩한 제단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이 절기를
더욱 거룩히 지키도록 하여라.
지구촌 전 인류를 대표하여 마치 제사장 민족같이
섭리인들이 나 여호와와 제단을 쌓도록 하여라.
너희들이 이 절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지구촌의 운명이 좌우된다.
크고 작은 재난의 경중과 유무가 달라지고

개인은 물론 가정과 교회 민족의 축복의 크기가 달라진다.

연말이 지나 마음이 헤이해진 자들이 눈에 띄는구나.

‘대역사’라는 말만 듣고

공연히 마음만 들뜬 자들도 있구나.

축복의 해가 될 것이라 하니 나 여호와와 절기조차 잊고

미리 축배를 드는 자도 있구나.

이때 더욱 근신하여 나 여호와에게 경배하라.

‘하나님의 절기’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니라.

사탄은 지금도 시뻘건 눈을 부라리며

이리저리 틈을 노리고 있다.

섭리인들이여,

나의 절기에 집중하여라.

더 높이 올라서 더 많이 나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

1년 동안 너희가 내 아들 예수의 이름을 찾고 불렀듯이

‘하나님의 절기’이 기간 동안은

나 여호와를 경건히 부르고 찾도록 하여라.

나 여호와에게 경배하여라.

나 여호와를 칭송하여라.

나 여호와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어라.

너희의 행위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듯이

매일 너희의 이삭을 드려

나 여호와에게 기쁨의 제단을 쌓도록 하여라.

올해의 악운을 물리치고

올해에 정해진 모든 축복을 받도록 하여라.

나 여호와 만군의 주 하나님이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하나님의 절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마당에 있던 자가 마루에 오르게 되고 그러다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 서서 주인의 보료에까지 앉게 됨과 같다고 기도 중에 깨우쳐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셨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과 자격을 갖게 됨을 다시 한 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